

급성 신우신염에서 신장 전산화단층촬영의 유용성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방사선과학교실*

조종태, 박태진, 이재균, 윤성철, 이연희*

급성 신우신염(APN)은 옆구리 통증, 늑척추각 압통, 발열, 오한, 농뇨 및 세균뇨 등을 보이는 임상중후군이다. APN에서 상부와 하부 요로감염의 감별, 요로계 이상, 합병증 등을 찾기 위하여 많은 신장 촬영이 사용되었으나 신장 전산화단층촬영(CT)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세가지 목적으로 전향적인 임상연구를 수행하였다: (1) APN에서 신장 CT소견을 관찰하고 분류한다; (2) 임상적으로 APN 진단을 받은 환자에서 신장 CT와 DMSA신스캔의 진단적 가치를 비교 평가한다; (3) APN에서 신장 CT소견과 임상소견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본 연구는 1997년 4월부터 1998년 3월까지 1년동안 단국대학교병원 내과에 입원한 환자중 상부 요로감염의 전형적인 증상 및 징후와 농뇨, 세균뇨가 동반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신장 초음파촬영에서 신농양이나 요로계 이상 소견이 관찰된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본 연구에 동의한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 23명중 여자가 22명, 남자는 1명이었고, 연령은 45±19세(20~79세)이었다. 이중 2명은 당뇨병이 있었고, 1명은 방광도관을 갖고 있었다. 대상 환자들은 조영제 중강 신장 CT소견을 기초로 네군으로 분류되었다: (1) 1군(6명), 정상 소견; (2) 2군(13명), 부채꼴 병변(초점성 혹은 미만성); (3) 3군(2명), 초점성 종괴 병변; (4) 4군(2명), 미만성 종괴 병변. 신장 CT와 DMSA 신스캔에서 신장 병변의 관찰빈도는 각각 74%(17/23), 68%(13/19)이었다. 신장 CT에서 관찰되는 병변의 유형과 옆구리 통증의 기간, 최고 체온, 발열 기간, 최고 적혈구침강속도, 최고 혈중크레아티닌치 및 농뇨 정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05$).

결론적으로, 연구자들은 APN에서 관찰되는 신장 CT소견을 네군으로 분류하였고, 신장 CT가 APN을 진단하고 중증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였다.

양측성 신우신염의 임상양상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윤성노, 이숙경, 배혜경, 김명숙, 김석영, 최의진, 장운식, 방병기

목적 ; 신우신염 환자가 급성 신부전을 보이는 것은 드문 경우로서 신장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세균혈증 혹은 패혈증 등으로 사구체 여과율이 저하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양측성 신우신염도 사구체 여과율을 떨어 뜨려 신부전을 유발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임상상에 관하여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저자들은 일반적인 편측성 신우신염과 비교하여 연구 하였다.

방법 ; 1996년 3 월부터 1998년 2월까지 본원 내과에 입원하여 급성신우신염 진단하에 치료 받은 환자 219명 중에서, 입원시에 발열이 있었고, 소변 그람염색 혹은 배양검사서 양성이었으며 신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환자 179 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 하였다. 신부전의 정의는 입원 초에 남자는 creatinine 1.4 mg/dl, 여자는 creatinine 1.1 mg/dl 이상인 경우로서 항생제 치료후 30% 이상 감소되는 경우로 하였다.

성적 ; 총 15 예 에서 양측성 신우신염이 발견되었다(8.38%). 6 레에서 심한 양측복통을 호소하였고 나머지 예는 신초음파검사상 이상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 하였다. 12레에서 전산화 단층촬영술로, 3 레에서 반복적인 초음파검사로 확진하였다. 4레에서 신피질 농양이 발견되었다. 편측성 신우신염환자와 비교하였을 때, 신부전의 발현빈도가 높았고 (60% 대 15.7%, $p<0.001$), 당뇨병 환자가 많았으며 (53.3% 대 27.3%, $p<0.05$), 신피질농양의 발현빈도가 높았다 (26.7% 대 1.8 %, $p<0.001$). 항생제 투여 후 37.5°C 미만으로 저하되기 까지의 발열 시간도 좀 더 연장 되는 경향을 보였다 (163.6±200.2 시간 대 67.5±57.2 시간, $p=0.096$ %)

결론 ; 신우신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양측 복통등 전신 증상이 심하고, 특히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양측성 신우신염 및 신농양의 발생, 그리고 신부전의 발생 증가로 환자의 이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되는 고로 임상적는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